

Issue Comment

2019. 3.11

음식료

위클리 및 종목 코멘트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음식료 Weekly

메리츠 음식료 김정욱 (6414@meritz.co.kr)

1. 전주 동향

음식료

3월 첫째 주 음식료(식품, 음료, 담배) 주가는 전주 대비 0.7% 하락. 원/달러 환율은 1,136.2원으로 상승. 곡물가는 옥수수(-25% WoW), 소맥(-4.7% WoW), 대두(-1.7% WoW), 원당(-3.5% WoW) 기록. 옥수수는 미국내 에탄올 재고량이 1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담이 가중되어 가격 낙폭 확대. 소맥은 1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소맥 공급 부담이 지속. 전주 미국 대두 수출 판매량이 시장 예상치를 2배 초과하는 수준이나, 공급 부담을 완화시키기에 역부족. 대부분은 USDA 글로벌 대두 기말 재고량 전망치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공급 부담이 지속되어 가격 약세. 중국 2월 대두 수입량이 전월 대비 40% 감소한 점도 가격 하락 요소로 작용. 원당은 18.12~19.1월 브라질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확대된 우려감이 최근 상당 규모의 강수량으로 축소되며 가격 하락. WTI의 하락도 가격 낙폭 확대 요소.

중국 라이신 시장 가격 약세 지속. 옥수수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며 라이신 가격 단기간의 소폭 변동성 있었으나 향후 완화될 전망. 하락하며 라이신 생산 비용이 절감됐으나, 시장 가격이 비용 절감분보다 크게 하락한 상황으로 제조업체 생산 마진 압박 중. 가격 약세 지속될 경우 중국 제조업체 일부 공장 중단(가동률 축소) 고려 계획. 하지만 단기간 중국 국내 시장 가격은 약세 지속 예상되며 추가적인 가격 하방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 메티오닌은 중국 국내 제조업체들의 공급이 안정적이나 수요가 부진하며 단기간 약세 지속 전망. 최근 위안화 강세도 수출에는 비우호적인 환경. 쓰레오닌은 시장 약세 기조가 장기화되며 현재는 비닥 시그널 발생. 국내 제조업체의 손실 장기화되며 일부 업체 생산 조정 계획. 주요 공급처는 Meihua, Yipin, Yifeng에 집중 예상. 트립토판 최근 거래 가격은 상승 기조이나 아직 시장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진 않고 있는 상황. 향후 생산 캐파 증가가 예상되며 가격 약세 기조는 유지 전망.

국내 이벤트는 1.(담배) 19.1월 담배 판매량 292억갑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6% 증가. 골ден 판매량 +12.4 YoY, 전자담배 +37% YoY 2.(오리온) '닥터유 너너지비' 누적 판매량 1.7억개 돌파(매출액 기준 2300억원). 18년 매출액 280억원으로 출시 첫 해 대비 5배 증가 3. (KT&G) 미국 액상 전자담배 '쥴 랩스'와 유사한 방식의 폐쇄형시스템(CSV) 전자담배 신제품 이르면 4월 내 국내 출시. 출시보다 빠른 출시로 시장 주도권 확보가 목표 4. (삼양식품) 비빔면 성수기 여름철 본격 대비. 신제품 '튀김쫄면' 출시해 계절면 라인업 확대 5. (CJ제일제당) 비비고죽 출시 100일만에 누적 판매량 500만개 돌파

2. 금주 전망

음식료 섹터 의견 Overweight 유지, 19년 음식료 영업이익 전년비 13.3 성장하며 KOSPI 영업이익 전년비 18.1 감소 대비 우수한 상대 성과 예상. 음식료 4Q18 실적발표 진행중. 종목별 기대치 상하회 훈조 하긴 했지만 섹터 PBR 1배, PER 13 배로 11년 이후 저평가 국면 유지. 상반기 종목별 분산 흐름 하반기 대형주 실적 확인 및 20년 추가 성장 기대감 반영 예상. CJ제일제당 상반기 쉬워스 리스크 해소 하반기 실적 부각, KTNG 대형주 즐 대응 제품 출시로 리스크 해소, 중소형주는 해외 수출 관련주로 부각 매일유업, 삼양식품, 자체 수익성 개선 예상되는 CJ프레시웨이 등 비용을 제외할 경우 전년도 영업일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대부분 컨센서스 부합 및 상회하는 실적 흐름 발표, 중소형 종목별 코멘트: 대상은 18년 비용 통제 흐름을 보여주며 과거 실적쇼크를 기록했던 우려감이 해소. 해외 부문은 구조적인 성장 흐름이 이어짐. 대상베스트코의 경우 적자폭을 전년대비 70억원 축소 시키며 19년 흑자 전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 동원F&B는 어가 하락 효과 및 매출 고성장 이어지며 호실적 달성, 19년 목표도 매출액 10% 성장, 영업이익 15%-20% 성장으로 설정. HMR, 치즈, 죽, 유기농, 유통부문 등 기존 매출 성장 사업부의 성장성이 이어질 전망. 하이트진로는 1Q19까지 공장 설비 변경관련 일회성 비용 반영이 부담 요인. 맥주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비용 지출 규모가 미정인 상황으로 영업이익의 증가 감소 방향성이 불확실. 현대그린푸드는 최저 임금 인상 110억원 반영이 19년 추가적인 부담 요인. 선진은 저돈가 상황지속과 농장확보가 더디게 진행되며 양돈생산량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상황

3.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관심종목

대상 (001680)

대상 별도 법인과 대상 베스트코 합병. 대상이 베스트코의 100% 지분을 확보하는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 합병기일 5/1일. 제조 역량과 유통 역량의 결합을 통한 B2B 시장의 지위 확대가 목표. 19년 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 20억원 개선, 금융순익 28억원 개선 예상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통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가능. 대상 베스트코 합병에 따른 효과 - 베스트코 사업의 제조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증자 방식 대신 합병으로 결정. 대상의 제조 능력과 베스트코의 유통 능력을 결합해서 PB제품, 소스 개발 확대 맞춤형 영업 강화 특히 학교급식 식자재 유통 확대

농심 (004370)

4Q18 연결기준 매출 5% 증가(IFRS 변경 기준 미적용), 해외 라면 및 기타 부문 매출이 전반적인 매출 성장 견인. 국내 라면이 기대치 소폭 하회했으나, 1Q19 신제품 신라면 건면과 로우 엔드 제품(해파라면) 출시 효과로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전망. 스낵 부문은 가격 인상 효과가 19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 부문별로는 국내라면은 1Q19 기준 전략인 고가 제품 판매와 대비되는 로우 엔드 제품(해파라면, 소매 가격 730~750원 수준) 출시해 경쟁사 제품에 대응. 해외라면은 미국은 4Q18 가격 조정 5% 진행한 효과 일부 반영돼 14% 성장. 19년 중국/미국 모두 두 차례 수입 예상보다 더딘 상황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3월 1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3월 1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3월 1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